

## 길 위에서

### 리카르도 페레도 웬데와 그의 예술적 탐험

리카르도의 발명에대한 예술적 욕망과 표현 방식에 대한 교차는 그의 위대한 스승인 백남준에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백남준을 따라 소설과 낡은 형태의 예술적 표현 사이를 끊임없이 여행중 입니다. 그의 초기 활동으로는 공간과 시간을 넘나드는 피규어 애니메이션 연재에 활발히 전념했습니다. 백남준을 거쳐, 그는 뒤셀도르프에 입학하여 비디오, 음악, 그리고 공연을 배웠으며 디터 정을 거쳐 홀로그래피 연구를 위해 필른에 들어갔습니다. 그후에 그는 최초로 홀로피드백을 발견하여 홀로그램 프로젝션의 새로운 기술로 변형 시켰습니다. 시간과 시간이 지나, 그의 예술적 표현은 섞이게 되었고 그의 작품들은 다양한 형식과 장르 사이를 굽이지며 흐르게 됩니다.

뒤셀도르프 미술 학교에서의 리카르도는 항상 카메라를 들고다녔고 문서화 하기, 논평 및 아이러닝 하기를 즐겼으며 학교의 작업물들을 조망하거나 심지어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빛은 그가 가장 선호하는, 선호했던 표현 수단 입니다. 리카르도는 조셉 보이스를 통해 1984 년 뒤셀도르프 전시회에서 최초로 백남준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뒤셀도르프에서 2개월 동안 새로운 독일 미술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백남준은 리카르도의 정신적 목사가 되었고, 1984 년부터 1988/89 년까지는 뒤셀도르프 미술 학교의 선생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리카르도는 그가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하고, 일을 해주었던 조셉 보이스 와 자유 국제대학교 에서 보이스의 확장된 예술 개념으로 부터 영감을 얻었습니다. 보이스가 사망한후, 리카르도는 마이클과 함께 협업하여 백남준을 대신해 보이스를 추모하는 기념물을 만들었습니다 : *Fat Corner* 비디오는 보이스의 상징인, 유명한 펠트 모자가 뒤셀도르프 명예의 전당에 있는 우물의 가장자리에 있는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하여 펠트가 어떻게 머리를 보호하는데 쓰이는지 관찰 할수 있었습니다. -caput (라틴어로 머리라는뜻)- 볼에서 뺏어나온 연기가 각기다른 하늘의 네 방향으로 올라가고있었고 그 상황은 영혼으로 변형되고 있었습니다; 주술적인 영적 재용해 효과는 그의 본국인 볼리비아에서는 매우 친숙하였기에 리카르도의 작품은 비슷한 성격을 띄었고 언제나 유사한 조건들로 긴밀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백남준은 그의 학생이 추모식을 상연하는 것을 아득히 멀리서 차분이 바라보았습니다.

후에 백남준은 1996 년 뒤셀도르프 미술관 에서 저와 수잔 리너트의 관장하에 리카르도의 새로운 비디오 작품을 학생 전시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 비디오 작품들은 백남준이 1985/86년도에 설치한 *Fish Flies on Sky* 와 같은 멀티모니터 설치물로 상영되었습니다. -당시 백남준의 가장 큰 박물관 작품과 초기 작품 이기도 합니다. 리카르도는 백남준의 예술적 사고와 행동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이것은 한미갤러리 서울에서 열리는 그의 개인전 '백남준은 비디오 부처이다' 에서 다시한번 시연됩니다. 전시되는 세계중 하나의 디지털 홀로그램 프로젝션에서 우리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홀로피드백을 배경으로 백남준의 얼굴 특징을 가진 가부좌 자세의 부처를 보게 됩니다. 이 디지털 효과들은 색상들의 선풍 처럼 보입니다. 리카르도는 그의 스승 백남준의 유명한 작품인 비디오 부처를 참고 합니다. 폐쇄 회로 화면 속에서, 부처 모형은 끊임없이 자아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리카르도의 홀로피드백들은 비디오 프로젝션의 녹화물; 즉, 예술에 관한 예술 입니다. 녹화물들은 때로는 레이저 빔과 별 모양의 LED 조명의 간섭을 통해 우주 운동으로 설정된 최대 다섯개의 이미지 투영으로 구성됩니다. 서울에서 상영되는 두개의 추가적인 작품들은 천장에 매달려 보이는 무지개 색깔의 다이아몬드 결정체의 그림자 홀로그램인 *Shiny Stone* 과 예술가가 떠다니는 상어와 조수에 의해 교차되는 장면의 영상물인 *Water Sketch* 입니다. 이 요소들은 색상들의 움직임에 의해 혼합물임을 다시한번 언급합니다.

리카르도의 실험적인 예술가의 초상화도 이곳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비디오 아티스트는 그가 자주 창조해냈던 피규어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로 이상하게 뒤틀리고 변형된 음성 녹음물들을 만들어 백남준과 보이스를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앤디워홀, 피카소, 반 고흐, 그리고 피네를 시간에 시간을 거쳐 페인팅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를 통해 참조하였습니다. 작업물들: 소음들과 리카르도 그만의 구성. 덧붙여, 그는 영상들과 행위예술들 뿐만 아니라 악기까지 활용합니다. 그는 전자 기타를 거대한 붓으로 활용하여 떨리는 선과 작은 패턴들을 그리기도 합니다. 2017년에, 콘스탄제 클라이너와 저는 베를린 Schlachthaus. fresh&fine art 갤러리에서 우리가 리카르도를 무대에 초대 했을당시 그가 위의 이러한 방법들을 아이들을 위한 t 자극을 침투시키는 매혹적인 이벤트를을 목격할수 있었습니다. 리카르도 페레도 웬데는 백남준의 발자취를 따르는, 진정한 전위적인 예술가 입니다.

2018 년 12 월 23 일, 베를린 에서 스테판 본 비즈.

문의사항 : 070 8680 3107, [seoul@hanmigallery.co.uk](mailto:seoul@hanmigallery.co.uk)

 HanmiGallery.Seoul

 HanmiGallery\_SU

 hanmigallery.seoul

London | 30 Maple Street | W1T 6HA | +44 (0)207 879 8661 | [info@hanmigallery.co.uk](mailto:info@hanmigallery.co.uk) | [www.hanmigallery.co.uk](http://www.hanmigallery.co.uk)  
Seoul | 608-12 Sinsadong Gangnamgu | +82 (0)70 8680 3107 / 3108 | +82 (0)10 3669 8897 | [seoul@hanmigallery.co.uk](mailto:seoul@hanmigallery.co.uk)